

## 은처문제에 대한 해법

- 
- 2012.02.23 12:43
- 답글 | 차단 | 삭제 | 신고

대한불교조계종에 과연 처자식을 숨겨놓은 은처승은 몇%나 될까?

설이 분분하지만, 이제 그게 몇%인지 몇십%인지를 언급하는 것조차 부끄러움을 넘어 무의미할만큼, 아니 묵계로 묶여진 당사자들끼리 고개 제끼고 나누는 음흉한 눈웃음만큼이나 실없고 철없는 논란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조계종의 은처승문제는 독신비구종단의 정체성제고와 바로 직결되는 문제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은처의 원인분석이나 그 당사자를 골라내는 일은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본문의 지적처럼 사설사암이 문제가 안되는건 아니고 대중생활이 바람직한 것도 사실이지만, 은처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위 고위직 승려들이 사설사암을 가지면서부터 이 문제가 비로소 불거진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중대형 사찰의 주지자리나 종단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의연히 대중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금권정치를 일삼는 권승들인데다 신도들의 눈이나 종헌종법상 규제를 피해가는 기술도 뛰어나 은처의 시점이나 그 가족의 거주위치를 알아내기가 실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종단의 기득권 실세력이어서 그 누구도 이들의 은처여부를 파헤치거나 자격을 박탈하는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야합을 못하거나 회의가 깊어 차라리 양심적으로 환속을 하면 모르겠으나 호적은 독신으로 깨끗이 해놓고 숨어서 처자를 돌보고 있는 능수능난한 이종생활 탓에 사법권을 동원해 끈질긴 추적이나 하면 모를까 현장 확인이나 검증이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승려자질의 문제도 단순히 동진출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는 것은 너무 주관적이고 부분적 분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진출가를 안해도 은처할 소지는 얼마든지 있고 또 동진출가자 가운데 예외의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의 방향은 어디에 있는가?

지구촌은 이제 신이 죽은 시대를 지나 종교를 벗어나는 시대를 맞으면서 각 종교의 성직자들을 바라보는 눈 또한 환상에서 오히려 혐오 쪽으로 점점 이동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됐습니다.

타종교의 경우는 접어두고, 우리 불교의 경우 여러 문제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 '사찰경제의 사유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처의혹, 도박, 음주가무 등의 의혹도 결국 그것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승가의 진실한 자정노력, 사원이나 종단의 경제운영체제를 재가자로 이동하는 등의 획기적인 개혁, 승려들의 공동체생활 복귀, 심지어 사찰보유문화재의 국가관리 등의 의견도 일견 타당성이 있는 주장입니다.

여기에는 천주교, 원불교 등을 롤 모델로 하여 종단이나 사찰의 재정운영시스템을 형식을 벗어나 짜임새 있게 일원화하여 사유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한다면 종단은 가난하지만 은처승 개인들은 부자라는 웃지 못할 현실이 극복될 수 있고 조계종의 전법능력이나 위상은 저절로 제고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자정이나 쇠신이니 하는 외침도 결국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아주 크다는 게 조계종 근현대사의 역사적 교훈입니다.

그리고 고위직 축재은처승들은 사찰 입장료를 받든지 안받든지, 신도들이 와서 보시금을 내든지 안내든지 크게 상관 안할만큼 이미 대부분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오늘도 그것을 용의주도하게 불려가고 있다는 실로 참담한 현실입니다.

신선한 테라와다 불교사원 운용방침도 바람직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존 종단이나 사찰에선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고 신축법당이나 포교당에서나 그나마도 겨우 일부분 용이할 수밖에 없다는게 한국불교의 비극입니다.

제가 보기엔 승려들의 돈줄을 끊고 그 재력을 종단과 불교를 위해 합리적으로 쓰이도록 하기 위해선 차라리 승가에 대한 기대를 떨쳐버리고 재가자들이 각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유치하고 외람되지만 다음과 같은 항목들의 운동부터 신도들이 시작하는게 오히려 현실성이 높아 보입니다.

1. 우선 신도들이 이런 때일수록 부처님 정법을 지키기 위해 실망과 회의에 빠져만 있지 말고 더욱 신심과

용기를 내 호법신장의 길로 과감히 나서야 합니다. 불교는 승려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불자들 모두의 것입니다.

2. 신도들과 사내대중이 주지나 간부직 승려들의 외박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은처한 곳을 향하거나 도박, 음주가무를 위해 출타하는건 아닌지를 감시하고 이를 확인했을 경우 가추를 드러낼까 염려하지 말고 과감히 공개해 그들의 거취가 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3. 신도들이 사찰의 부익부 박익빈에 편승하지 말고 고위직 승려나 종대형 사찰만을 쫓아다니기 보다는 (정법이 아닌 사법을 주로 펼치는 사찰이나 양심없고 자질이 형편없는 승려만 아니라면) 오히려 가난한 소형사찰, 비록 감투는 없지만 착실한 무명승려의 사찰을 잘 찾아 신행생활을 해야 합니다. 현재 큰 사찰들은 부패와 비리의 온상입니다. 신도 많은 부자절에 거금시주는 특히 금물입니다.

4. 신도들이 힘을 합쳐 은처승의 발본색원과 재산몰수, 산문출송을 종단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다수의 승려들은 본인이 은처승이거나 아니면 도반, 문중, 학연 등 안면에 걸려 이걸 하지 못합니다.

5. 종단과 사찰운영에 재가자들을 외형적,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투입하도록 요구하고 종단과 사찰재정 운영을 합리적으로 일원화하여 상보정재의 유실과 낭비를 막고 수행과 교육, 포교만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역시 승단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너무 비관적 관점이어서 당황하실지 모르겠으나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나마 현실적으로 한걸음이라도 내디딜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

[http://blog.daum.net/bolee591/?t\\_nil\\_login=myblog](http://blog.daum.net/bolee591/?t_nil_login=myblog)